

## 월산선사의 중도선사상(2)

한태식(보광)\*

• 목 차 •

- I. 머리말
- II. 선수행지도 방법
  - 1. 실참지도법
  - 2. 재가자 지도법
- III. 월산스님의 중도선사상
  - 1. 월산스님의 중도관
  - 2. 월산스님의 중도선
- IV. 바다의 실크로드 결실
  - 토굴, 석굴수행, 청도 적천사 토굴
- V. 맺음말

---

\* 대각사상연구원장, 동국대 명예교수.

© 『大覺思想』 제36집 (2021년 12월), pp.51-83.

## 한글요약

월산스님(1913~1997)의 중도선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째는 월산스님의 화두는 ‘이뵈고’ 화두가 중심이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크게 분류하면 전문선원의 수좌들을 위한 실참지도법과 재가자를 위한 근기에 맞는 지도법에 차이가 있다. 수행자의 見處를 표현하는 방법인 계송작송법과 守本眞心인 自心을 밝히고, 중생구제로 회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는 월산스님은 자신의 중도관적인 입장에서 선원대중들이 수행할 것을 설하고 있다. 스님의 중도적인 수선방법은 화두에 전념하되 양면을 버리고, 자신의 근기에 따라 중도적 입장에서 頓漸修行을 하라고 하였다. 월산스님의 中道禪이란 자신의 근기에 따라 최적의 수행법을 선택하여 ‘한 법도 버리지 않는 것이 中이고, 한 마음도 산란하지 않는 것이 道이다’고 한다.

셋째는 실크로드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석굴암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달마대사가 바다의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와서 소림굴에서 선법이 전했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굴인 석굴암에서 월산스님은 정진하였고, 이를 펴기 위해 불국선원을 개원한 것이다. 특히 월산스님은 청도 직천사 토굴에서 수행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석굴암에서 용맹정진하였음을 볼 때 달마의 소림굴의 수행과도 유사점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도 있다.

## 주제어

월산스님, 중도선, 중도사상, 돈오점수, 달마대사, 소림굴, 조당집, 바다의 실크로드

## I. 머리말

월산선사(1913~1997 : 월산스님으로 통칭함)의 선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바가 있다. 1차 발표에서는 주로 월산스님의 수행과정과 참구화두가 중심이었다.<sup>1)</sup> 그러나 2차로는 월산스님의 선사상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불국선원에서 결제, 해제의 선원법문과 기타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월산스님이 강조하였던 중도에 대한 개념과 이를 선수행에 어떻게 활용하여 수행자를 지도하였는지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스님은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중도를 주창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나 신도들에게도 많은 서목 작품을 써주면서 이를 생활의 지표로 삼게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월산선사의 중도선사상」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먼저 이를 실천하는 선수행지도 방법으로 출가수행자를 위한 실참지도법과 재가자들을 위한 지도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월산스님은 재가자의 선수행을 위해 부인선원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월산스님의 중도선사상에 대해서 중도관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근세 우리나라 선사들 중에는 중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월산스님의 중도관의 특색은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를 선수행과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월산스님의 선사상이 중국의 달마선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구명하고자 한다. 선의 전래는 바다의 실크로드로 전해졌고, 그 종착점이 바로 석굴암이며, 여기에서 수행한 월산스님이 결실을 맺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 II. 선수행지도 방법

### 1. 실참지도법

1) 한태식(보광), 「월산 큰스님의 선사상(1)」, 『大覺思想』 32집, 대각사상연구원, 2019, 12, pp.87-136.

월산스님은 선원수좌들에게 오도송 작법을 가르치고 있다. 선원에서 수행했으나 자신의 見處를 밝힐 오도송을 짓지 못하는 납자들을 위함이다.

우리 선가에서 사구(四句)라 함은 단단구비(單單俱非)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제1구가 ‘모든 것은 하나다’라고 하면, 제2구는 ‘모든 것은 하나가 아니다’이고, 제3구는 ‘하나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제4구는 ‘하나가 아니면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백비란 이런 부정이 백 번도 넘게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sup>2)</sup>

스님은 친절하게도 오도송의 작법인 사구계송작법의 원리를 일러주고 있다. 禪家의 四句는 제1구는 긍정에서 제2구는 부정으로, 제3구는 긍정과 부정을 겸하고, 제4구는 부정에서 부정이니 긍정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백 번을 부정해도 끝이 없음을 말한다. 이는 中觀學의 八不中道와 같은 논리이다. 특히 월산스님의 선사상에는 중도사상이 저변에 깔려 있다. 우리나라의 선사들 가운데 수좌들에게 오도송작법의 원리를 법상에서 설하신 분은 아마도 흔하지 않는 일이다. 논자의 과묵한 탓인지 모르지만, 아직 들어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수행자들의 오도송 작법은 반드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수행방법에 대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설하고 있다. 이 예화를 육조혜능에서 들고 있다. ‘육조혜능의 吾有一物하니 上柱天下柱地하고 明如日黑似漆한다. 常在動用中호대 動用中收不得이로다 是甚麼?’라고 하였으나 육조혜능의 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혜능의 ‘吾有一物’<sup>3)</sup>과 『從容庵錄』雲門의 上柱天下柱地<sup>4)</sup>와 함께 복합되어 있다. 그러면서 설하기를,

이는 모든 불조의 말이니 결정코 의심하지 말라. 마음 밖에는 한 물건도 따로 건립된 것이 없다. 근본 마음에서 만 가지 법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인이 이르기를 ‘심생즉중종법생(心生則種種法生)이요 심멸즉중종법멸(心滅則種種法滅)이라고 했다. 마음이 생기면 모든 법이 따라서 생기고 마음이 멀하면 모든 법이 따라서 멀한다는 것이다.

- 
- 2) 「此事를 모르면 威興差事로다」,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94.  
 3) 宗寶 編, 『六祖大師法寶壇經』, 『頓漸第八』(대정장48, 359c01), “吾有一物。無頭無尾。無名無字。無背無面。諸人還識否”  
 4) 離知 錄, 『萬松老人評唱天童覺和尚頌古從容庵錄』 권2 第31則 雲門露柱 (대정장48, 248a17), “一道神光 上柱天下柱地 初不覆藏淨裸赤 灑灑超見緣也”

이러한 도리를 바로 알고자 하면 그대들은 一相三昧와 一行三昧를 닦아야 한다. 무엇을 일상삼매라 하는가. 온갖 형상에 머물지 않고, 미음도 사랑도 없으며, 갖지도 버리지도 않으며, 이롭거나 손해거나, 무너뜨리거나 세우지 않으면 저절로 안락해지기 때문에 일상삼매라 하는 것이다. 또 무엇을 일행삼매라 하는가. 온갖 곳에 다니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모두가 하나의 마음이 되면 그것이 곧 도량이며, 정도가 되니 이를 일러 일행삼매라 한다. 이렇게 닦는 사람은 언하에서 광명천지를 보게 되리니 따로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sup>5)</sup>

월산스님은 선원의 결제 상당법문에서 혜능의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를 인용하면서 ‘마음 밖에 따로 한 물건이 없다’고 설한다. 그리고 그 증거로 『대승기신론』의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법이 사라진다’<sup>6)</sup>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음을 바르게 알고자 하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닦을 것을 말하고 있다. 一相三昧란 모든 형상에서 머무르지 않는 것이고, 一行三昧란 행주좌와 어묵동정간에 마음이 하나 되면 그것이 도량이고 정도이며 한 마디에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혜능의 『육조단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sup>7)</sup>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성취하면 바른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이와 같이 되면 하늘을 버릴 수 있고 땅을 버릴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월산스님은 수행의 방법에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수행의 방법으로 守本眞心이 第一修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若欲修行인댄 先修頓悟하라. 守本眞心이 第一修行이니라. 迷心修道하면 但助無明

- 
- 5) 「하늘을 버티고 땅을 버티라」,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101.
- 6) 馬鳴菩薩 造, 眞諦 譯, 『大乘起信論』(대정장32, 577b20), “當知世間一切境界。皆依衆生無明妄心而得住持。是故一切法。如鏡中像無體可得。唯心虛妄。以心生則種種法生。心滅則種種法滅故”
- 7) 宗寶 編, 『六祖大師法寶壇經』 定慧第4(대정장48, 352c25), “師示衆云。善知識。一行三昧者。於一切處行住坐臥。常行一直心是也。淨名云。直心是道場。直心是淨土。莫心行諂曲。口但說直。口說一行三昧不行直心。但行直心於一切法 勿有執著。迷人著法相。執一行三昧。直言常坐不動妄不起心。卽是一行三昧”; 宗寶 編, 『六祖大師法寶壇經』 付囑第6(대정장48, 361a26), “師復曰。諸善知識。汝等各各淨心聽吾說 須達一相三昧一行三昧。若於一切處而不住相。於彼相中不生憎愛。亦無取捨。不念利益成壞等事。安閒恬。靜虛融澹泊。此名一相三昧。若於一切處行住坐臥。純一直心不動道場。眞成淨土。此名一行三昧。若人具二三昧。如地有種含藏長 養成熟其實。一相一行亦復如是”

이니 病盡藥除하면 還是本人이니라

만약 수행을 하고자 할진댄 모름지기 먼저 깨달으라. 본 바탕이 친진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수승한 수행이니라. 마음을 모르고 도를 닦는 것은 무명만 도와줄 뿐이니 병이 없어서 약조차 쓰지 않는다면 앓기 전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sup>8)</sup>

스님은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 하고 본래 참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수행이라고 한다.

이 守本眞心에 대해서는 오조홍인의 『最上乘論』에서 설하고 있다. 여기서는 수본진심을 중시하여 수차에 걸쳐서 말하고 있다. “문기를 守本眞心이 열반의 근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반의 體는 寂滅無爲安樂이니 나의 마음이 곧 眞心이다. 망상을 끊고, 망상이 단절되면 곧 正念이니라. 正念을 갖추면 고요히 비추어 지혜가 생겨나느니라. 寂照生智하면 법성의 궁극에 도달하며, 곧 열반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守本眞心이 열반의 근본이니라.”<sup>9)</sup>고 한다.

또 서산대사의 『禪家龜鑑』에서도 守本眞心이 第一精進이라고 하였다.<sup>10)</sup> 이어서 월산스님은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頓悟頓修냐 頓悟漸修냐 하고 물으려 할 것이다. 요즘 이 문제로 천하총림이 시끄럽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말이다. 돈수냐 점수냐를 놓고 解悟냐 證悟냐 하는 것을 간택하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즉심시불임을 먼저 알면 자연히 진심이 지켜질 것이니 이는 돈수라 할 것이요. 순차상으로는 이를 알고 지키는 것이니 점수라 해도 틀린 것이 아니다. 이는 다만 천하 총림의 노화상들이 공부인들의 병통을 다스리기 위해 한 방편이니 말끝을 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지 자꾸 손가락을 보니 시비가 생기는 것이다.<sup>11)</sup>

8) 「마음을 모르고 닦으면 無明만 깊어진다」,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170.

9) 弘忍禪師 述, 『最上乘論』(대정장48. 377c14), “問曰。何知守本眞心是涅槃之根本。答曰。涅槃者體是寂滅無爲安樂。我心既是眞心。妄想則斷。妄想斷故則具正念。正念具故寂照生。寂照生故窮達法性。窮達法性故則得涅槃。故知守本眞心是涅槃之根本”

10) 休靜 述, 『禪家龜鑑』(한불전7, 640a18-a21), “守本眞心 第一精進 若起精進心 是妄非精進 故云莫妄想莫妄想 懈怠者 常常望後 是自棄人也”

11) 「마음을 모르고 닦으면 無明만 깊어진다」,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170.

스님은 수행의 첫발은 頓悟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卽心是佛에 두고 있다. 마음이 곧 부처이므로 이를 알고 이 참마음만 지키면 수행은 저절로 된다고 하면서 당시의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설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을 말한다. 돈점을 구분하여 解悟와 證悟로 시시비비가 분분하지만, 둘 다 틀리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들이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방법상의 차이일 뿐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만 보고 시비가 생긴다고 일갈하고 있다. 월산스님은 守本眞心과 卽心是佛로 당시에 크게 쟁점이 되었던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에 대해 알기 쉽게 설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自心에 대해서 설하고 있다.

화두는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것이다. 생사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화두를 깨쳐 나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성불의 길이다. 성불은 自心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 자심은 일체중생의 본성이요, 시방여래의 본래면목이다. 이 자심은 본래부터 청정하여 나고 죽음에 生滅相이 없고 男女相이 없으며, 善惡相도 없으니 무어라 이름할 수 없고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다.<sup>12)</sup>

여기서는 自心을 설하고 있다. 이 자심은 위에서 말한 홍인의 守本眞心과 다르지 않다. 이 자심이 바로 부처이니 心卽是佛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本來面目이라고도 한다. 이어서 “자심을 알려면 우선 한 생각 일어나는 근원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오직 행주좌와에서 ‘이것이 무슨 물건인고?’를 깊이 의심하여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수행이라 하고 공부라 하며 참선이라 한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믿고 죄업을 지어도 팬찮은가 하는 것이다. 즉 수행자는 철저히 계율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크게 후회한다고 하였다. 즉 수행을 하면서 오는 경계과정과 수행자도 계율을 중시해야 함을 설하고 있다.

자신이 선원에서 평생 참선을 한 경험과 실참수행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하면서 올바르게 수행하기를 독려하고 있다.

내가 평생 선방에서 참선을 해봐서 아는데 이 참선이란 것이 보통 하기 힘든 중노릇이 아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 많게는 12시간도 넘게 선방에 앉아 있으려면 그것이 보통 고된 일이 아니다. 차라리 속가에 나가 농사를 짓는것이 훨씬 편하지,

12) 『參禪學人이 새겨들 法門』,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299.

그저 청산이나 바라보며 하루종일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 그런데 그대들은 출세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중노릇 중에서도 가장 힘든 참선을 하려고 하니 모르는 사람은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대들이 참선을 하려는 것은 그저 놀고먹기 위해서가 아니다. 생사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자기의 본마음을 찾아 부처가 되기 위해서다. 그 장한 일을 하려고 그대들은 중이 되었고, 중 중에서도 참선중이 되었다.

억!

그런데 이 참선수좌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서 부처를 찾고 마음을 찾고 있는가?

마음을 떠나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를 떠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불제조가 그토록 간절하게 일렀거늘 지금 왜 그대들은 남의 허벅지를 긁고 있는고! 남의 다리 긁으면 거기서 부처가 보이고 마음이 보이는가?<sup>13)</sup>

스님은 평생을 참선수행하면서 본인의 체험과 어려움을 자세히 설하고 있다. 참선수행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 때로는 12시간까지 좌선을 한다는 것은 대근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냥 선원에 앉아서 청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조복을 받아야 하고, 졸음을 이겨내어야 하며, 번뇌망상을 걷어 내어야 한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수행하면서 참선화두에 전념하지 않고 마음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가라는 일침이다. 앞에서 守本眞心과 自心이 부처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마음 찾기에는 전념하지 않고,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으려고 하니 이는 남의 허벅지를 긁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질책이다. 중노릇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 하였으면, 가장 훌륭한 승려가 되어야 하는데 왜 깨달은 자가 나오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반성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당시 선원의 실태에 대해 수행납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법문이 있다.

一人은 說過佛祖하되 一歩行不得이요. 一人은 行過佛祖하되 一句不得이요. 一人은 說得行得하고, 一人은 說不得行不得이라. … (중략) …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뛰어난 사람인가? 자네들은 이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sup>14)</sup>

13) 「남의 허벅지를 긁지 말라」, 『월산대선사범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208.

14) 「납자가 해야 할 일」, 『월산대선사범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248.



즉 한 사람은 말 잘하기를 부처나 조사보다 낫지만, 한 걸음도 행하지는 못하고, 한 사람은 행이 부처와 조사보다 뛰어나지만, 한 구절도 말할 줄 모른다. 또 한 사람은 말도 잘하고 행도 잘하며, 한 사람은 말도 못하고 행도 못한다. 선원에서 수행하는 그대들은 이들 중 누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그대들은 이들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강하게 의문을 던진다.

스님은 불국선원의 반결제 법어에서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설하면서 몸을 던져 공부에 전념하라고 한다. 그리고 경책하기를 서산대사의 鳥鼠僧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결제 때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섯 가지 도둑중으로 물리게 된다. 다섯 가지 도둑중이란 어떤 중을 말하는 것인가. 서산대사가 이르기를 말세의 비구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조서승(鳥鼠僧) 아양승(啞羊僧) 독거사(禿居士) 지옥재(地獄滓) 피가사적(被袈裟賊)이라 했다. 조서승이란 박쥐중이란 말이니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닌 모습으로 사는 자를 말한다. 아양승은 병어리 염소중이란 말이니 염소처럼 매 앵매앵 할 뿐 혀를 가지고도 설법을 못하는 자를 말한다. 독거사는 대머리 거사란 말이니 겉은 중인데 속으로는 속인의 마음을 쓰는 자를 말한다. 지옥재는 지옥 찌꺼기란 말이니 죄가 하도 무거워 지옥에 떨어져 움짱달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피가사적이란 가사 입은 도둑놈이란 말이니 부처님을 팔아서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 이 어찌 부끄럽지 아니한가?<sup>15)</sup>

스님은 공부하는 사람은 달마대사의 가르침과 같이 밖으로 쉬고 안으로 험떡거리지 않으며, 마음을 장벽과 같이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서산대사의 가사 입은 도적에 대해서 설하고 있다. 증거를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에서 인용하고 있다.<sup>16)</sup> 즉 조서승은 박쥐처럼 출가자의 정신도 속인의 정신도 없이 비승비속 생활을 하는 승려, 아양승이란 설법을 하지 못하는 승려, 독거사란 겉으로는 머리를 깎은 승려인데 속 마음가짐은 속인처럼 마음을 쓰는 승려, 지옥

15) 「공부를 하려거든 몸을 던지라」,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264.

16) 休靜 述, 『禪家龜鑑』(한불전7, 641c16-p.642a8), “佛云云何賊人 假我衣服 裨販如來 造種種業 末法比丘 有多般名字 或鳥鼠僧 或啞羊僧 或禿居士 或地獄滓 或被袈裟賊 噫 其所以以此裨販如來者 撥因果排罪福 沸騰身口 迭起愛憎 可謂愍也 避僧避俗曰鳥鼠 舌不說法曰啞羊 僧形俗心曰禿居士 罪重不遷曰地獄滓 賣佛營生曰被袈裟賊 以被袈裟賊 證此多名 以此二字結之 此二字文出老子”

재란 죄를 많이 지어서 앞으로 지옥에 떨어질 승려, 피가사적이란 가사 입은 도둑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수행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책이다. 온 몸을 던져서 수행에 정진하라고 한다.

이어서 수선자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공부하라고 한다.

百尺竿頭不動人    백 척 장대 끝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雖然得入未爲眞    깨달았다 하더라도 참이라 할 수 없다.  
 百尺竿頭須進步    장대 끝에서 모름지기 한 발 더 내딛어야  
 十方世界是全身   十方세계가 곧 자기의 온몸과 같이 되리라.  
 백척간두에서 뛰어내리라. 두 눈 딱 감고 뛰어내리라!  
 백척간두에서 한 발 앞으로 내딛지 못하는 것은 죽을 것이 겁나서다.  
 욕심껏 모은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애착하는 마음 때문이다.<sup>17)</sup>

스님은 공부하는 방법과 공부인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설한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백척간두에서도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한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참으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선수행자가 무슨 애착과 욕심이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느냐고 수행자들을 다그치고 있다. 또한 ‘그대들은 乾坤失色하고 日月無光한 그곳에 일단 몸을 던져야 한다. 크게 죽지 않으면 결코 크게 살 수 없나니라’고 한다.

결계법문에서 보조선님의 『誠初心學人文』<sup>18)</sup>을 인용하면서 수행자의 법문 듣는 자세에 대해서 설하고 있다.

법문을 잘 듣는 것도 공부하는 방법이니 이를 선문에서는 줄탁동시(啾啄同時)라 한다. 줄탁이란 달걀이 부화할 때 병아리가 안에서 툭툭 쪼으면 밖에서 어미닭이 탁탁 쪼아 마침내 껍질을 깨는 것과 같은 것을 비유함이니라. … (중략) … 그러나 줄탁동시는 다만 앉아서 시절인연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병아리가 애써 분발하지 않으면 쪼아주지 않는 것이니 굳이 누가 먼저냐 하면 병아리가 먼저니라. 왜 그런고 하니 병아리는 껍질을 깨뜨리지 않으면 부화할 수 없고, 마침내 그

17) 「百尺竿頭에서 한 걸음 더 나서라」,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261.

18) 知訥 述, 『誠初心學人文』(한불전4, 738b21-c04), “若遇 宗師陞座說法 切不得於法作懸崖想 生退屈心 或作 慣間想 生容易心 當須虛懷聞之 必有機發之時 不得隨語學者 但取口辦 所謂 蛇飲水成毒 牛飲水成乳 智學成菩提 愚學成生死是也”

속에서 죽게 되기 마련이니 이는 공부인이 스스로 분발해야 할 이유이니라. 오늘 이렇게 결제를 하고 법문을 들겠다고 모여 앉은 것은 줄(倅)이요, 산승이 법상에 오른 것은 탁(啄)이라 이 자리가 줄탁동시의 자리니 현애상(懸崖想)을 짓거나 관문상(慣聞想)을 짓지 말고 허회문지(虛懷聞之)하야 기발지시(機發之時)를 만들어야 하리라.<sup>19)</sup>

보조스님의 『誠初心學人文』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법문 듣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聞法者는 법문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물러날 생각을 내거나, 평소에 늘 듣던 법문이라고 하여 쉽게 생각을 내어서도 안 된다. 마음을 비우고 법문을 들으면 반드시 깨달을 때가 있다고 하면서, 법문은 바로 줄탁동시와 같다고 한다. 법문 듣는 사람은 끊임없는 정진으로 병아리가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선지식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쏘아 주어야 병아리가 탄생한다. 이와 같이 수행자는 늘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이 스승과 제자는 줄탁동시라고 하지만, 그런데 월산스님은 줄탁동시이지만, 병아리가 먼저라고 한다. 공부인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스승이 쏘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결제법문이 바로 참선납자들은 깨어날 준비를 해야 하고 노승은 쏘아주는 법문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수행자의 법문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법이다.

또한 수행자의 自利를 위한 상구보리와 중생교화를 위한 하화중생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상구보리가 먼저임을 강조하고 있다.

불교공부에는 두 가지 길이 있나니 하나는 향상일로(向上一路)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향하일로(向下一路)하는 것이다. 향상일로는 참선정진을 말하고, 향하일로는 중생교화를 말한다. 향상일로는 결국 향하일로로 나아가기 위함이요. 향하일로는 향상일로로 나아가기 위함이니 이는 손등과 바닥 같으니라.<sup>20)</sup>

수행자들이 상구보리는 하지 않고 하화중생을 하려면 되지 않는다고 경계하고 있다. 물론 향상일로와 향하일로는 손등과 바닥같이 모두 중요하지만, 참선수행자는 먼저 자신의 수행에 전념하여 득력을 한 후 중생구제나 남의 스승이 되고

19) 「法門 듣는 사람의 자세」,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272.

20) 「向上一路和 向下一路」,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221.

다른 사람을 지도하여야 한다. 산을 올라가 보지도 않고 어찌 산을 내려오려고 하느냐. 산은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내려올 때도 조심해야 한다. 날개 부러진 새가 어찌 거북이를 달고 하늘을 날려고 하느냐면서 항상일로한 후에 향하일로 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

이상으로 월산스님의 실참지도법은 ‘이뵈고’ 화두가 중심이지만, 다양한 상당법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첫째, 선원에서 수행자들에게 계송작법을 가르치고 있다. 둘째,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중시하면서 외연과 내연을 쉬게 하고, 卽心卽佛이기에 守本眞心은 바로 自心이며, 본래면목이라고 하면서 선수행자들이 계율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셋째, 참선이 참으로 어려운 수행인데도 도인이 못 나오는 것은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고 있기 때문이며, 선문답도 못하는 병어리 수좌들이 반찬타령이나 해체비타령만 하고 있다고 당시 선원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넷째, 공부인은 백척간두에서도 진일보해야 하며, 조사관을 투철하려면 대의심, 대분심, 대신심을 내어야 한다. 다섯째, 참선수행자의 법문 듣는 자세는 항상 즐락동시의 준비가 되어야 하고, 항상 일로로 공부하여 향하일로의 중생구제를 회향하며, 시주물의 무서움을 일깨워주고 있다.

## 2. 재가자 지도법

스님은 재가신도들에게도 참선을 지도하고 부인선원을 개원하였다. 대중들에게는 근기에 맞는 법문으로 지도하였지만, 언제나 선수행으로 회통하고 있다. 특히 시의적절한 법문으로 참여한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식목일을 맞이한 법문에서 조주선사의 정전백수자(庭前柏樹子) 화두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조주의 잣나무는 그냥 잣나무가 아니다. 종자가 아주 귀한 것이어서 여간해서는 바람에 쓰러지거나 벌레먹는 일이 없다. 그러나 이 잣나무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어서 나무 주인이 잠시만 눈을 팔거나 외출을 하면 금방 시들시들해서 말라 죽는다. 그래서 이 나무를 키우려는 사람은 한시도 잣나무에서 눈을 떼거나 바람을 피우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한 번 잣나무를 심으면 아예 늙어 죽을 때까지 잣나무 옆에서 살든가, 이사를 가더라도 반드시 파서 품속에 담고 다녀야 한다. 그러면 이 잣나무는 언제나 푸르러서 죽는 일이 없고 맛있는 잣도 주렁주렁 열린다.<sup>21)</sup>

식목일 법회에서 조주의 庭前栢樹子 화두로 잣나무 키우는 법문을 하고 있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선사다운 법문이다. 조주의 잣나무는 바로 화두이며,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어서 자나 깨나 이 화두에 전념하라는 법어이다. 조금만 방심해도 화두는 멀리 달아나며 시들어 죽고 만다. 항상 마음 깊이 새겨서 참구할 것을 설하고 있다.

月下栢樹無現影

달빛 아래 잣나무에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도다.

이것이 나의 잣나무니라.

대중들도 그대들의 잣나무를 잘 키우라.

그 잣나무 한 그루만 잘 키우면 삼세에 걸쳐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으리라.<sup>22)</sup>

자신의 경계를 설하고 있다. 자신은 화두가 잘 들리고 있으니 그대들도 庭前栢樹子 화두를 잘 들라고 한다. 또한 이 화두만 잘 들면 깨달음을 얻어 삼세의 문제가 해결됨을 말하고 있다. 식목일날 법문에서 나무를 잘 심자든지, 산림녹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사답게 조주의 庭前栢樹子 화두를 예화로 들어 화두의 나무를 심자고 하였다. 참으로 선사다운 모습이다. 불교의 연중행사 대중법문에 서도 항상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또 성도제일 법문에서 대중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見明星悟道라.

석가대성은 남월 팔일 새벽 동쪽에서 떠오른 셋별을 보고 도를 깨쳤다. 석가는 새벽 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그대들은 어떤 별을 보고 깨달을 것인가.

지금 그대들의 별은 어디에 떠 있는가?<sup>23)</sup>

남월 팔일 성도절에 대중들에게 한 법문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은 셋별을 보고 깨달음을 성취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대들은 어떤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다. 그대들의 별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보고 깨

21) 「뜰앞의 잣나무는 잘 크고 있는가」,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55.

22) 위의 책 p.56.

23) 「그대의 별은 어떤 별인가」,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322.

달을 것인가. 그대들의 별을 가져오라고 하는 화두는 참으로 성도재일에 맞는 선사다운 법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날 불자교수회의 교수들이 불국사를 찾아와서 스님께 법문을 청하였다.

여러분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니 내가 한 가지 물겠다. 셋은 둘에서 나오고 둘은 하나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 1, 2, 3은 0에서 나온다. 0이 없으면 1, 2, 3, 4, 5가 나오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이 산승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0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수학을 잘 몰라서 그러니 아는 사람 있으면 좀 가르쳐 주라.(대중이 말이 없자 노사가 대갈 하셨다.)

억!

0은 바로 여기서 나왔도다.<sup>24)</sup>

불국사를 찾은 교수불자들의 법회에서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불교에 대한 설법이 아니라 수학에 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숫자의 근원인 0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답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하자 할을 하면서 이 할 속에서 0이 나왔다고 하는 선사다운 모습이다. 이를 알려면 참선을 하라. 참선을 하면 바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 스님은 틀에 박힌 정형화 된 화두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 그들만이 집중할 수 있는 화두를 대중들에게 제시하면서 정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상으로 재가자를 위한 법문에서 시의적절한 법을 설하면서도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식목일날은 庭前栢樹子 화두를, 교수불자들에게는 0의 출처를 밝히라고 설하며, 성도절에는 너의 별을 찾으라고 한다. 전국신도회 간부들의 연찬회에서는 호법과 삼보의 외호를 부탁하면서 自性佛을 찾으도록 하고, 일반신도들에게는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주인공 화두를 참구하며, 분별심과 집착심을 떠나 하루에 30분이라도 정진하는 生活禪을 설하고 있다. 따라서 각자의 본분이나 생업에 맞는 환경 속에서 분별심과 집착심을 여의고 매일 30분만이라도 화두참구를 하는 것이 생활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24) 「하나 이전에는 무엇이 있는가」,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340.

### Ⅲ. 월산스님의 중도선사상

#### 1. 월산스님의 중도관

월산스님의 선의 특색을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논자는 이 점에 많은 고민을 하였다. 예를 든다면 용성스님의 선은 ‘大覺禪’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철스님은 ‘頓悟禪’이라고 정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는 논자의 독자적인 견해이며 학문적으로 더 깊이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면에서 월산스님의 선은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많은 자료와 법문 등을 분석한 결과 ‘中道禪’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왜 월산스님의 간화선 특색을 ‘중도선’이라고 규정지를 수 있는지에 관해서 그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본 항을 전개하고자 한다.

월산스님은 불국선원의 안거 중 법문에서 중도에 관한 상당법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수행자들의 중도에 대해 바른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묵(遺墨) 중 ‘中道’라는 작품을 많이 남겼다. 스님들이나 신도들에게도 중도라는 서예 작품을 많이 써주었으며, 지금도 불국사에서는 이 글씨를 판각하여 중요한 곳에 걸어두고 수행의 지표로 삼고 있다.

월산스님은 언론사와 인터뷰를 좀처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입적 1년 전에 법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성타스님의 간곡한 권유에 의해 『불교춘추』와의 인터뷰를 가지면서 세상을 향해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셨다. 어렵게 인터뷰가 이루어졌음을 발행인 최석환은 편집자 주에서 밝히고 있다.

중도의 가르침을 전하라

큰스님께서는 몇 차례의 인터뷰 요청을 극구 사양하셨는데 성타스님(불국사 부주지)의 배려로 큰스님의 법음을 청해 들을 수가 있었다.

3시간에 걸친 사상초유의 대담과 2차례에 걸친 인터뷰에서 중도사상을 통해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고자 강조하셨다. <편집자 주><sup>25)</sup>

이 인터뷰에 응하신 이유는 ‘중도의 가르침을 전하라’라는 월산스님께서 대중

25) 최석환 인터뷰, 『참선만이 살길이다』, 『불교춘추』 3호, 불교춘추사, 1996, 5, p.15.

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월산스님께서 대중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중도라는 것이다. 중도사상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국불교가 바로 서며, 선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 『불교춘추』 최석환 발행인과의 인터뷰는 「참선만이 살길이다」는 주제어로 제목을 삼았고, 편집위원 의림스님과의 인터뷰는 「중도를 지키면 모든 선악시비 사라져」라고 하였다.

1차 인터뷰에서는 탄생부터 출가수행의 전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중도에 관한 말씀은,

중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도이지. 나의 중도관은 일체 것을 초월해서 일체것을 여의지 않는 것이 나의 중도관 이지요.<sup>26)</sup>

월산스님의 1차 인터뷰 내용의 주제는 주로 참선에 관한 이야기와 중도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스님은 중도란 양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초월하지만, 여의지 않는 것이라고 자신의 중도관을 밝히고 있다. 2차 인터뷰에서는 중도에 관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였다.

한국의 여러 큰스님이 중도사상을 주장하시는 분이 드물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나는 중도를 주장해요  
큰스님의 중도사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는 중도사상을 늘 강조해. 대개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라고 하는 것이 중도인데, 나의 중도관은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나의 중도관이지요. 나쁜 것 버릴 것이 있어, 나쁜 것 고쳐서 써야지, 악이라고 버리면 돼, 고쳐야지. 더군다나 언론 기관에서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릴려고 하지 말고, 나쁜 것도 고쳐서. 요새 정부가 나쁜 일을 많이 하대.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백성들이 조그만 법 어긴 것을 들춰내고, 대가리 큰 놈은 큰 법을 어기고 나쁜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법을 엄하게 다뤄야 해.<sup>27)</sup>

기자가 중도에 대한 질문을 하자 1차 인터뷰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하고 있다. 다른 선지식들은 중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은

26) 최석환 인터뷰, 「참선만이 살길이다」, 『불교춘추』 3호, 불교춘추사, 1996, 5, p.16.

27) 의림 인터뷰, 「중도를 지키면 모든 선악시비 사라져」, 『불교춘추』 3호, 불교춘추사, 1996, 5, p.28.



중도를 주장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중도설은 ‘대개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버리라고 하지만,’ 월산스님의 중도관은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라고 간단명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어서 ‘나쁜 것은 버릴것이 아니라 고쳐서 써야 하고, 악도 버리지 않고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대부분이 중도를 난해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비해서 월산스님은 중도관을 간결하게 정의하고 있다. 즉 선악을 막론하고 모두 수용하여 나쁜 것은 좋게 고치고, 좋은 것은 더 좋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언론기관에도 중도관적인 입장에서 좋은 기사만 쓰지 말고 나쁜 것도 고쳐서 좋게 될 수 있도록 쓰라고 한다. 또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정부가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자신들은 빠져나가고 힘없는 백성들의 작은 죄만 들추어낸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월산스님의 이러한 중도관에 대해서 불국사사회주 성타스님과 관장 종상스님은 월산스님께서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중도 계송을 소개해 주었다.

不捨一法이 中이요      한 법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이며  
 一心不亂이 道니라      한 마음도 산란하지 않는 것이 도이니라<sup>28)</sup>

중도에 대한 인터뷰 기사와 같이 나쁘고 좋은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 것이 ‘中’이요, 어떠한 경계에도 마음이 산란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道’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中道’라는 붓글씨를 많이 쓰셨다고 한다.

## 2. 월산스님의 중도선

월산스님은 중도관에 입각해서 선원수행자들을 지도하였다. 결제법문에서도 중도법문을 하였는데,

佛法門中에는 不捨一法이라. 부처의 경계에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했다. 왜

28) 『大覺思想』, 32집 화보, 「성림당 월산 대종사 中道觀」, 대각사상연구원, 2019.12.  
 성타스님, 종상스님과의 인터뷰. 논자는 2019년 7월 22일 오후 5시 50분경 중국 성지순례 후 귀국 중에 ‘이 문장을 월산스님께서 평소에 즐겨이 사용했던 계송이며, 中道라는 붓글씨를 쓸 때도 늘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불국사 승가대학장 정수스님과 같이 듣고 확인하였음.

그런가? 예를 들어 법당 하나 짓는다고 하자. 법당에는 기둥도 필요하고 대들보도 필요하고 석가래와 기와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먼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러나 祖師關門에는 不受一塵이라. 조사의 관문을 투철하고자 하면 티끌 하나도 용납할 수 없다. 왜 그런가? 일체의 경계는 환화요 번뇌이니 이를 버리지 않고서는 조사의 관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도 취할 것이 없다.

하나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취할 것이 없다.

하나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니 그러면 이 경계에 이르러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버려야 하는가?

오늘은 이 한 마디를 묻겠다.

이르라!<sup>29)</sup>

월산스님은 불국선원에서 상당법문을 하면서 부처님 법에는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조사관문에서는 ‘한 티끌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으니 서로 다르지 않는가? 조사관을 하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번뇌를 놓아야 하니 취할 것도 없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수좌들을 다그쳤다. 이 물음에 한 번 일러보라고 하면서 부처님과 제바달다의 이야기를 예를 들고, 또 通曉梵日국사가 중국의 鹽官齊安화상을 만나 참문한 일화를 소개하였다.

어디서 왔는가?

東國에서 왔습니다.

陸路로 왔는가, 水路로 왔는가?

두 길을 모두 거치지 않고 왔습니다.

일월이 다니는데 동서가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이 말에 염관화상은 인가를 했다.

과연 동방의 보살이로다.

실로 그러하다. 좌우에 머물지 않고 시비선악을 벗어나며 그 마음이 한가로우면 극락과 지옥이 모두 쓸데없는 것이다. 여기에 이르면 不捨一法과 不受一塵이 손바닥이요 손등임을 알게 되리라.<sup>30)</sup>

이 일화는 通曉梵日(810~889)이 鹽官齊安(?-842)을 참알하여 깨달음을 인가

29) 「日月은 東西에 一걸리지 않는다」, 『월산대선사범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91.

30) 위의 책, p.93.

받은 대목이다. 사굴산과의 개산조인 범일은 22세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제안 화상을 만나 거침없는 문답에서 선지를 보인 것이다. 제안화상은 범일국사를 동방의 보살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범일은 ‘어떻게 해야 성불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제안은 ‘도는 닦을 필요가 없고 다만 오염되지 말고 부처도 보려고 하지 말고 보살도 보려고 하지 말아라. 평상심이 도이니라’고 하였다. 이 말에 범일은 크게 깨쳤다고 한다.<sup>31)</sup>

왜 월산스님은 중도법문을 설하면서 제안과 범일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을까? 스님은 不捨一法과 不受一塵의 상반된 말을 하면서 범일의 日月은 동서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시비선악을 벗어나면 不捨一法과 不受一塵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하나임을 설하고 있다. 중도란 양면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서로 상반된 논리가 하나임을 말하고 있다. 그 하나는 바로 양면을 초월한 경지이다.

우리나라의 선수행자들은 남종선의 혜능이 신수보다 우수하고, 신수의 頓悟漸修보다 혜능의 頓悟頓修가 뛰어난 수행방법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월산스님은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시비에 휘말리지 말라고 하였다. 신수와 혜능의 두 계승을 읊은 후 다음과 같이 법문을 하였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를 두고 신수와 혜능의 法器에 대해 가볍게 말하지 마라. 신수대사도 나중에 축천무후와 중중, 예종의 귀의를 받아 낙양과 장안에서 문풍을 크게 날려 뒷날 三帝國師 兩京法主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뒷날 사람들은 南能北秀라 하여 양자강 남쪽에는 혜능이요 북쪽에는 신수가 크게 떨친다 했다.

우리가 이 법문에서 배워야 할 것은 고인들이 먼지를 없애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진을 했느냐에 있다. 頓悟頓修냐 頓悟漸修냐에 매달려 시비를 하다보면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온 난리를 치던 저 남진문하의 烏合縑衆과 같으리니 내 문하에서는 그 같은 일을 삼가라. 다만 근기에 따라 공부를 하되 물러섬이 없어야 하리니 그것이 공부하는 이의 길이니라.

人人盡欲出常流      사람마다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길 원하지만  
折還還歸炭裏坐      편견에 치우치면 숯더미 속으로 돌아가리라.<sup>32)</sup>

31) 『祖堂集』 권17(고려대장경영인본 45, 339a, 동국대학교 역경원 1976), “尋善知識 參彼鹽官齊安大師 大師問曰 什摩處來 答曰 東國來, 大師進曰 水路來陸路來, 對云 不踏兩路來, 既不踏兩路閣梨爭得到這裏, 對曰 日月東西有什摩障礙, 大師曰 實是東方菩薩, 梵日問曰 如何即成佛, 大師答曰 道不用修 但莫污染 莫作佛見菩薩見 平常心是道 梵日言下大悟”

32) 「허공의 먼지를 쓸어내라」,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247.

한국선은 해능의 남종선의 선택을 전승하다 보니 그의 頓悟頓修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월산스님은 신수의 頓悟漸修도 대단히 중요한 수행방법임을 설하고 있다. 한 곳에 치우치다 보니 남전참묘(南泉斬猫)와 같은 공안이 나온 것이다. 한 곳에 치우치므로 고양이만 죽이게 되었다는 말이다. 선수행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양변에 치우치는 것이다. 자신의 근기에 따라 돈오돈수든지 돈오점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돈오돈수만이 바르다는 것을 아님을 설하면서 중도적 입장에서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월산스님은 중도란 말 이전의 소식이라고 피력 하였다.

참선공부하는 남자가 항상 조심할 일은 말끝에 매달리는 일이다. 언어나 문자란 하나의 감옥이니 말끝을 따라다니다 보면 그르치게 되니라. 그래서 이르기를 ‘聲句以前の 소식을 알라’고 했느니라. 성구이전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가?

喚馬何曾馬	말이라 부른들 어찌 말이되며
呼牛未必牛	소라 부른들 반드시 소가 아니니
兩頭都放下	두 가지를 모두 놓아버리고
中道一時休	중도도 한꺼번에 쉬어야 하리. <sup>33)</sup>

참선공부하는 남자들은 말이나 문자에 매달려서는 안 되고, 언어나 문자는 하나의 감옥과도 같다고 하면서 말 이전의 소식을 아는 것이 불교라고 한다. 그러면서 中道라는 말에도 매이지 말고, 한꺼번에 쉬어라고 한다. 즉 중도란 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설하고 있다. 말 이전의 소식임을 알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능과 신수에서부터 시작된 돈점의 논쟁은 1990년경 한국불교계의 수행방법에서 큰 잇슈로 대두되었다. 당시에는 해인사 성철스님의 頓悟頓修와 송광사 보조스님의 頓悟漸修 논쟁이 불교계뿐만 아니라 학계의 관심 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월산스님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였다.

요즘 학인들 사이에 돈오돈수가 맞느냐 돈오점수가 맞느냐로 시끄럽다. 나에게도 여러 사람이 견해를 물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시비에 휘말리지 말라.

頓悟頓修 無行足虎	돈오돈수는 움직일 발이 없는 범이요
頓悟漸修 無智目鳳	돈오점수는 바라 볼 눈이 없는 봉황이로다.

33) 『聲句以前の 경계』, 『월산대선사범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157.

돈오돈수와 돈오점수는 종문의 스승들이 근기에 따라 공부를 가르치기 위한 처방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공부에 방해가 되고 학인들이 말끝만 쫓아다니니 산승이 처방을 내리리라.

向上一路行禪子      향상일로를 걷는 참선학도는  
 頓漸兼去東海投      돈점을 모두 거둬 동해바다에 버려라.  
 땀!                      애닭구나!<sup>34)</sup>

이 법어는 당시에 불교계의 수행에 있어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고려시대의 보조선에 대해 성철스님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보조선은 조계종의 종지에도 어긋나며, 頓悟漸修의 수행방법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선지식들이나 학자들이 어느 한 편을 지지하면서 자신의 수행방법을 밝힐 때였다. 이러한 시기에 월산스님은 돈오돈수와 돈오점수 모두에 문제점이 있다. 돈오돈수는 호랑이지만 발이 없어서 한 걸음도 앞을 못 가고, 돈오점수는 봉황이지만 지혜의 눈이 없어 앞을 못 본다고 지적하면서 頓漸의 논쟁을 모두 동해에 버리라고 일갈하였다. 당시의 교단으로서는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월산스님은 중도실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하였다.

佛法은 처음에는 恁麼也不得이요 不恁麼也不得이다. 그래서 總不得又不得이다. 그러나 恁麼也打요 不恁麼也打로다. 그러나 여기서 進一步하면 恁麼也得이요 不恁麼也得이니, 恁麼也不打요 不恁麼也不打가 된다. 이것이 中道實相이니 中道란 바로 二邊處中的 中道이기 때문이니라.<sup>35)</sup>

즉 월산스님의 중도관은 처음에는 이래도 맞지 않고 저래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 다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다. 이래도 한 방향이, 저래도 한 방향이 맞는 까닭이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면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다. 그래서 이래서 안 때리고 저래도 안 때린다. 이것이 중도실상이며, 중도란 두 변을 떠나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중도라고 한다. 즉 중도관은 二邊處中 이라고 하였다.

34) 「頓悟頓修와 頓悟漸修를 모두 버리라」,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135.

35) 「中道の 자리」,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p.232.

(처음에는)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래도 때리지 않고 저래도 때리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경계를 중도라 한다. 중도는 이것이라거나 저것이라거나 하는 양변의 집착을 모두 떠난 경계다. 유와 무를 떠나되 유와 무를 떠나지 않으니 비유하면 수레의 두 바퀴를 움직이는 것은 바퀴 자체가 아니라 두 바퀴를 움직이는 축이다. 이 축을 끌면 두 바퀴가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니 이는 좌우를 초월하되 그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야 能生能活의 경지가 된다.

더 쉬운 예를 하나 들겠다. 출가한 사람은 처음에는 일체를 버리나니 일체는 유요, 출가는 무다. 그러나 공부가 익으면 다시 그 버렸던 일체를 제도하러 나서니 이는 유무를 초월한 세계다. 여기서 다시 그것을 떠나고, 떠난 것도 떠나게 되면 이는 還歸本處가 된다.<sup>36)</sup>

월산스님은 이 앞에 전제로 黃龍祖心(1025~1100)의 제자인 靑原有信禪師의 상당법문인 山是山 水是水를 예화로 들고 있다. 有信禪師는 법상에 올라 “노승이 30년 전에 아직 참선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산을 보면 산이었고, 물을 보면 물이었지만, 그 뒤 선지식을 친견하고 깨달은 경계가 조금 있게 되자 산을 보아도 산이 아니었고, 물을 보아도 물이 아니었다. 지금 번뇌망상이 모두 없어진 경지가 되고 보니 이전 그대로 산을 보면 바로 산일뿐이고 물을 보면 물일뿐이다. 대중들이여, 이 세 가지 견해는 같은가, 다른가?”<sup>37)</sup> 라고 법문을 하였다.

이 말이 우리나라의 온 국민에게 회자 된 것은 성철스님의 신년법어에서 비롯되었다. 그로 인해 성철스님의 대표적인 법어처럼 알려졌지만, 실은 靑原有信禪師의 유일한 상당법문이다. 아무런 느낌도 없이 단순히 보았을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부정 인식으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나 그 부정의 단계를 넘어서면 다시 긍정으로 돌아와서 還歸本處하면 참모습이 보인다. 이것이 眞如實相이며 中道實相이라고 월산스님은 설하였다. 월산스님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출가자의 수행방법을 예화로 들고 있다. 초심자에게는 일체를 버리라고 하지만, 수행이 무르익으면 중생구제를 위해 還歸

36) 위의 책.

37) 元代 圓極居頂 編, 『續傳燈錄』 권22 (대정장51, 614b29), 『五燈會元』(만속장138, 670a8), “吉州靑原惟信禪師上堂。老僧三十年前未參禪時。見山是山見水是水。及至後來親見知識有箇入處。見山不是山。見水不是水。而今得箇休歇處。依然見山祇是山。見水祇是水。大眾這三般見解是同是別。”

本處해야 하라고 한다. 그리고 중도란 수례의 두 바퀴가 아니고 두 바퀴를 움직이는 축이라고 하면서 수선자들에게 중도적으로 수행정진할 것을 독려했다.

월산스님은 자신의 중도관적인 입장에서 선원대중들이 수행할 것을 설하고 있다. 스님의 중도적인 수선방법은 화두에 전념하되 첫째는 양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여 二邊處中이라고 한다. 둘째는 자신의 근기에 따라 중도적 입장에서 頓漸修行을 하라고 한다. 셋째는 不捨一法과 不受一塵이 손바닥이요 손등과 같으니 둘이 하나라는 것이다, 넷째는 수례 두 바퀴의 축과 같으니 還歸本處 하라고 한다. 이를 정리하면, 한 법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이며(不捨一法是中), 한 마음도 산란하지 않는 것이 도라고 하였다(一心不亂是道), 즉 월산스님의 中道禪이란 자신의 근기에 따라 최적의 수행법을 선택하여 不捨一法과 一心不亂으로 용맹정진하는 수행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IV. 바다 실크로드의 결실 - 토굴, 석굴수행, 청도 적천사 토굴

월산스님의 선수행은 단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도 적천사 토굴에서 큰 체험을 한 스님은 회향을 토함산 석굴암과 불국사에서 회향한다. 이러한 회향은 바로 달마대사의 소림굴과도 같으며, 석굴암은 실크로드의 결실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바다의 실크로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황순일은 해상 실크로드로 테라와다불교가 전파되었다고 한다. 이를 요약하면, 인도에서 부처님법이 전래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 구법자들의 목숨은 건 구도행각도 있었지만, 불법을 전파하기 위하여 언어와 문자가 다른 이국으로 떠나 전법한 선지식들도 많이 있다. 특히 남방 쪽으로 간 소승불교는 바다를 이용한 해상 길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길은 단지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무역로로 활용된 것을 구법승이나 전법승들이 불법을 전파 하는데 이용하였던 것이다. 소승불교의 전파길인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주로 바다의 실크로드를 이용하였다.<sup>38)</sup>

38) 황순일, 「해상 실크로드」, 『테라와다불교의 동남아시아 전파』,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출판부, 1990, pp.23-29.

그런데 육로로는 초원의 실크로드와 사막의 실크로드가 있다. 이 두 실크로드의 교통수단은 말과 낙타이다. 특히 초원의 실크로드에는 기마민족을 중심으로 말이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고, 사막의 실크로드에서는 낙타가 중심이 되고 말도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크로드는 무역의 교역도 있었지만, 여기에 못지않게 종교와 문화의 전파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정수일 박사는 『문명의 루트 실크로드』에서

기원전 3세기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이 실론을 비롯한 3대륙에 공식 포교단을 파견함으로써 불교의 전파가 시작되었다. 성공적인 실론 전파에 이어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불교는 서역 지방을 거쳐 동북아 일대로 확산되었다. 불교는 주로 오아시스 육로를 통해 파미르 공원을 중심으로 한 서역 일원으로 부상한 후 동쪽으로 전해져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까지 전파되어 최대의 동북아 불교권을 형성하였다.

1천여 년 간에 걸친 불교의 아시아 전파는 실크로드의 3대 간선은 물론, 佛陀路나 라마로 같은 지선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sup>39)</sup>

그는 실크로드를 통한 불교문명의 전파에 대하여 바다의 실크로드와 오아시스의 실크로드를 말하고 있다. 해로로는 스리랑카, 마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반도, 자바 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9세기 경에 티베트 등 히말리아 산속을 중심으로 밀교가 전래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1천년 동안 불교의 전파는 초원, 사막, 바다의 3대 실크로드를 통하여 전해졌으며, 이를 佛陀路라고 하였다.

그는 실크로드의 백미로 석굴암을 말하고 있다.

토함산 자락 해발 565m에 자리한 석굴암은 불교석굴의 연파(延播)선상에서 피어난 한 떨기의 꽃이다. 문명의 전파에는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연파와 여기저기 점점이 이루어지는 점파(點播)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중 연파는 전파의 연속성이 보장된 가장 확실하고도 효과적인 형태다. 인도에서 간다라미술과 융합되어 고유의 석굴미술을 구비한 채 출발한 불교석굴은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석불군, 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 석굴, 중국 신장의 키질과 쿡투리 석굴, 투르판의 베제클릭 석굴, 둔황과 휘양, 원강의 석굴, 그리고 신라의 군위 삼존석굴 등 수많은

39) 정수일, 『문명의 루트 실크로드』, 효형출판, 2002, pp.94-95.



대소 석굴들로 이어짐으로써 동서에 걸친 하나의 긴 연파대를 조성했다. 석굴암은 이 연파대의 동쪽 끝에서 가장 완숙된 모습으로 그 대미를 장식한 석굴이다.<sup>40)</sup>

이미 알려진 일반적인 학설이긴 하지만 정수일은 석굴암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인도의 간다라미술과 융합되어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석굴, 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스 석굴, 투루판 석굴, 돈황 석굴, 원강 석굴 등과 연결된 연파형 석굴의 마지막 백미라고 한다. 특히 다른 석굴들은 대부분 암석을 파고 들어가서 이루어진 석굴이지만, 토함산의 석굴암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외부에서 부분적으로 화강석에 조각하여 산에 굴을 파고 이를 조립하여 흠을 덮은 미증유의 시공법을 도입했다고 한다.<sup>41)</sup>

앞에서 불교학과 밀교의 전파에 대해서는 살펴보았다. 이어서 선불교의 전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선불교의 전래는 보리달마에서 시작되고 있다. 『景德傳燈錄』菩提達磨章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제 이십팔조 보리달마는 남인도 향지국의 셋째 왕자이다. 종성은 刹帝利이고, 본명은 菩提多羅이다. 후에 제 이십칠조 반야다라를 만났다. (반야다라는) 본국에 이르러 왕한테 공양을 받고 보리다라[師]의 비밀스런 자취를 알고서 두 형들과 함께 시험 삼아 보시 받은 보주에 대하여 변론하게 하였는데, (이로써 보리다라는) 마음을 깨달았다. 그러자 이에 존자가 말했다.

그대는 이미 제법에 통달하였다. 대저 達磨란 通과 大의 뜻이다. 마땅히 이름을 達磨라고 해라. 이로써 보리달마라고 이름[號]을 고쳤다. 이에 달마는 반야다라 존자에게 고하여 말했다.

제가 이미 법을 얻었습니다. 장차 어느 나라로 가서 불사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바라건대 개시를 내려주십시오.

존자가 말했다.

비록 그대가 법을 얻었지만 멀리 유행해서는 안 된다. 잠시 남천축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나의 열반을 기다렸다가 이후 67년이 지나면 반드시 震旦으로 가서 大法樂을 시설하여 상근기를 직접 접화하라. 결코 너무 빨리 가서 햇빛에 시들어서는 안 된다.<sup>42)</sup>

40) 정수일, 「문명교류의 화신 석굴암」, 『한국속의 세계』(하), 창비, 2005, pp.26-27.

41) 위의 책, p.22.

42) 『景德傳燈錄』 권3 (대정장51. 217a), “第二十八祖菩提達磨者。南天竺國香至王第三

보리달마는 인도 향지국의 셋째 왕자였다. 그의 스승은 27조 般若多羅존자였고, 그에게서 법을 받았다. 그는 반야다라가 입적한 후 인도에서 중국으로 갈 것을 스승으로부터 부족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남인도의 香至國은 지금의 남인도 첸나이 인근이라고 한다.

논자는 2016년 3월 19일에서 26일까지 첸나이에 있는 힌두스탄 대학과 동국대학교의 교류협정관계로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안나 대학도 방문하였다. 그리고 아잔타 석굴, 엘로라 석굴 등을 참배하고, 몸바이까지 순례한 일이 있었다. 이 순례도중 3월 22일 달마대사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캄치프람의 달마대사 사찰을 방문하여 주지인 스마다하스 스님과 불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달마대사의 석상을 조성하고 있는 조각회사까지 방문하였다. 이 주변에는 고대 불교유적지가 많았고, 2세기경의 팔라와 왕조 때 조성한 불상으로 추정되는 곳도 참배하였다.<sup>43)</sup>

향지국의 국왕은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는 여정의 준비를 잘 해주었다. 왕은 큰 배를 마련하여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는데 3년 동안 먹을 식량과 필수품을 가득 실어 보내면서 전송을 하였다고 한다.

왕이 곧 큰 배를 마련하여 갖가지 보배를 가득 채우고, 몸소 시료들을 거느려 해변까지 나가서 전송하였다. 달마대사는 바다[重溟]를 떠다니며 무릇 3년 동안 추위와 더위를 겪다가 남해에 도착하였는데, 그때가 梁의 普通 8년 正始년 9월 21일이었다. 광주의 자사 蕭昂이 主禮가 되어 영접하고 武帝에게 보고[表]를 드렸다. 황제가 보고[奏]를 살펴보고 사신을 파견하여 조서를 보내 迎請하자, 10월 1일 金陵에 도착했다.<sup>44)</sup>

달마대사가 인도의 향지국에서 배를 타고 3년간 항해를 하여 중국에 도착한 것은 바다의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달마대사는 禪法을 전하기 위해 인

---

子也。姓刹帝利。本名菩提多羅。後遇二十七祖般若多羅。至本國受王供養。知師密迹。因試令與二兄辨所施寶珠。發明心要。既而尊者謂曰。汝於諸法已得通量。夫達磨者通大之義也。宜名達磨。因改號菩提達磨。師乃告尊者曰。我既得法。當往何國而作佛事。願垂開示。尊者曰。汝雖得法未可遠遊。且止南天待吾滅後六十七載。當往震旦設大法藥直接上根。慎勿速行衰於日下”

43) 『万日念佛結社』 21호, 정토사, 2020.6.6., p.81.

44) 『景德傳燈錄』 권3 (대정장51, 219a), “王即具大舟實以衆寶。躬率臣寮送至海壖。師汎重溟凡三周寒暑達于南海。實梁普通八年丁未歲九月二十一日也。廣州刺史蕭昂具主禮迎接。表聞武帝。帝覽奏遣使齎詔迎請。十月一日至金陵”

도에서 배를 타고 험난한 바닷길을 통하여 중국에 왔다. 따라서 禪法은 바닷길을 이용하여 전래 되었다. 그의 바닷길은 험난하였으며, 추위와 더위를 겪고, 파도와 싸우면서 3년 만에 중국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바다의 실크로드의 전법도 간단하지는 않다.

그는 금릉에서 武帝를 만나 법담을 나누었으나 마음이 기연에 계합하지 못함을 알고 혼자서 자리를 떠났다.

嵩山の 少林寺에서 머물면서 면벽하며 종일토록 묵연히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그 행위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를 壁觀婆羅門이라고 불렀다.<sup>45)</sup>

달마대사는 무제와의 문답에서 인연이 아님을 알고 송산 소림사의 소림굴에서 오로지 面壁觀에 전념하였다. 그를 찾아온 神光을 만나 慧可라는 불명을 주면서 正法眼藏涅槃妙心을 전하였다. 27대 반야바라의 법을 받은 28대 달마대사의 법은 29대 혜가에게 전해졌다.

달마의 壁觀에 대하여 柳田聖山은 『ダルマ』에서 ‘벽을 觀하는 것이 아니라, 벽이 觀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벽을 觀한다” 것은 『傳燈錄』의 달마전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한다. 그는 ‘달마의 벽관은 石窟寺의 벽면을 장식하는 千佛의 부처가 부처를 보고, 佛佛相念의 모습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壁觀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千佛洞의 벽이 사막을 넘어서 온 호승 달마를 觀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sup>46)</sup>

또한 柳田聖山은 선불교의 탄생에 대하여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중

45) 위의 책, (대정장51. 219b), “寓止于嵩山少林寺。面壁而坐<座?>終日默然。人莫之測。謂之壁觀婆羅門。”

46) 柳田聖山 저, 『ダルマ』, 일본 동경 講談社, 昭和56年, pp.84-85, “ダルマの教への基本となる實踐を、壁觀とよぶ。壁觀とは、壁が觀るのである。往往にして、壁を觀ることと混同されて、ダルマは終日、壁に向かって坐禪していたとか、九年面壁したとかいわれる。誤解はすでに古く唐代にさかのぼる。『傳燈錄』のダルマ傳に、「嵩山少林寺に寓止し、面壁して坐して終日默然たり、人は之を測る莫く、之を面壁バラモンと謂う」とあるのがそれである。昔も今も、ダルマの壁觀の正體を測る人はないのである。しかし、壁觀は壁を觀ることではない。ダルマは、西域を通過して北魏にくる。西域に點在する千佛洞は、ダルマのあしあとにほかならぬ。ダルマの壁觀は、石窟寺の壁面を飾る千佛の、佛が佛を見る、佛佛相念のけしきをはなれてはありえない。壁觀という言葉は、千佛洞の壁が、流沙を越えて來た胡僧ダルマを觀たことから始まる。”

국 민족은 하나의 독자의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켰다. 그것은 일찍이 인도의 불교도 중국고래의 종교와도 다른 새로운 중국사상의 탄생이라고 한다. 달마를 조사로 하는 禪宗의 발생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sup>47)</sup>

柳田聖山の 달마의 面壁觀의 해석과 천불동과 석굴사원의 연계성은 새로운 학설이며, 달마의 선종이 중국불교의 새로운 탄생으로 보는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중국불교의 새로운 탄생인 선종은 바다의 실크로드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柳田聖山の 달마의 벽관에 대한 재해석은 인도나 중국의 석굴사원 서만 아니고 우리나라 토함산 석굴암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중앙의 석불을 중심으로 둥근 석굴벽면에는 10대 제자 • 관세음보살 • 문수보살 • 보현보살 등이 벽면에 서로 둘러서 마주 보고 있다. 이는 唯佛與佛의 경지로써 부처와 부처만이 서로 주고받는 以心傳心の 正法眼藏涅槃妙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국 초기선종사인 『祖堂集』도 바다의 실크로드와 연관성을 지어 볼 수 있다. 『조당집』은 952년 五代시대인 南唐 泉州의 招慶寺에서 편찬되었다. 천주는 지금 福建省의 무역항으로 국제교류가 활발한 도시였다. 특히 여기서 8Km 정도 떨어진 晉江변에는 신라왕이 있어서 신라에서 내왕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신라원에는 신라스님들도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과거칠불부터 당말 오대까지의 선사 253명의 행적과 법어, 계송, 선문답이 실려 있고, 신라의 선사들도 10여 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을 편찬한 사람은 靜과 均의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柳田聖山은 ‘두 분 모두가 조선에서 입당한 승려가 아닐까’라고 한다.<sup>48)</sup> 그러나 변인석은 靜은 중국의 승려이고, 均은 해동구법승으로 보고 있다.<sup>49)</sup> 그런데 이 선종서가 중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려 고종 32년(1245)에 再彫大藏經 補板에 편입되어 있다. 이때 서문을 쓴 사람은 석광준(釋匡僞)으로 되어 있으나 그의 행적을 찾을 수 없다.

아마도 천주에서 신라인들에 의해 편찬된 선종서가 중국에서는 크게 호응을 받지 못했으나 고려에서는 귀중하게 여겨서 재조대장경 보유판에 편입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전등서는 50년 뒤 『경덕전등록』의 편찬에 큰 영향을 미

47) 위의 책, p.80, “この時以來、中國民族は一つの獨自の新しい宗教を生む。それは、かつてのインドの佛敎とも中國古來の宗教ともちがう、新しい中國思想の誕生といえた。ダルマを祖とする禪宗の發生は、その延長線の上にある。”

48) 柳田聖山, 대승불교 13, 『조당집』, 일본 동경 中央公論社, 1990, p.321.

49) 변인석, 「한국선승 10인전기 『조당집』에 처음부터 수」, 『법보신문』 2014.7.30.

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선불교도 바다의 실크로드로 전해졌으며, 그 증거는 구산 선문의 유학승이 대부분 서해를 이용하여 구법이 길을 떠났고, 귀국 시에도 바닷길을 이용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실크로드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석굴암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달마대사가 바다의 실크로드를 통해 선법이 전해졌고, 천불동도 달마의 벽관과 연관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굴인 석굴암에서 월산스님은 정진하였고, 이를 펴기 위해 불국선원을 개원한 것이다. 특히 월산스님은 청도 적천사 토굴에서 수행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석굴암에서 용맹정진하였음을 볼 때 달마의 소림굴의 수행과도 유사점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도 있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월산스님의 중도선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째는 월산스님의 화두는 ‘이뵈고’ 화두가 중심이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크게 분류하면 전문 선원의 수좌들을 위한 실참 지도법과 재가자를 위한 근기에 맞는 지도법에 차이가 있다. 수행자의 見處를 표현하는 방법인 계송작송법과 守本眞心인 自心を 밝히고, 중생구제로 회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는 월산스님은 자신의 중도관적인 입장에서 선원대중들이 수행할 것을 설하고 있다. 스님의 중도적인 수선방법은 화두에 전념하되 양면을 버리고, 자신의 근기에 따라 중도적 입장에서 頓漸修行을 하라고 하였다. 월산스님의 中道禪이란 자신의 근기에 따라 최적의 수행법을 선택하여 ‘한 법도 버리지 않는 것이 中이고, 한 마음도 산란하지 않는 것이 道이다’고 한다.

셋째는 실크로드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석굴암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달마대사가 바다의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와서 소림굴에서 선법이 전해졌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굴인 석굴암에서 월산스님은 정진하였고, 이를 펴기 위해 불국선원을 개원한 것이다. 특히 월산스님은 청도 적천사 토굴에서 수행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석굴암에서 용맹정진하였음을 볼 때 달마의 소림굴의 수행과도 유사점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도 있다.

## 참고문헌

- 馬鳴菩薩 造, 眞諦 譯, 『大乘起信論』, 대정장32  
 宗寶 編, 『六祖大師法寶壇經』, 「頓漸第八」, 대정장48  
 『祖堂集』 권17, 고려대장경 영인본 45  
 離知 錄, 『萬松老人評唱天童覺和尚頌古從容庵錄』 권2 第31則 雲門露柱, 대정장48  
 弘忍禪師 述, 『最上乘論』, 대정장48  
 『景德傳燈錄』 권3, 대정장51  
 元代 圓極居頂 編, 『續傳燈錄』 권22, 대정장51  
 『五燈會元』, 만속장138  
 知訥 述, 『誠初心學人文』, 한불전4  
 休靜 述, 『禪家龜鑑』, 한불전7  
 『월산대선사법어집』, 월산문도회, 1999 개정판  
 柳田聖山, 『ダルマ』, 일본 동경 講談社, 昭和56年  
 柳田聖山, 대승불교 13, 『조당집』, 일본 동경 中央公論社, 1990.  
 황순일, 「해상 실크로드」, 『테라와다불교의 동남아시아 전파』,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출판부, 1990  
 정수일 저, 『문명의 루트 실크로드』, 효형출판, 2002.  
 정수일 저, 「문명교류의 화신 석굴암」, 『한국속의 세계』(하), 창비, 2005.  
 변인석, ‘한국선승 10인전기 『조당집』에 처음부터 수록’. 『법보신문』 2014.7.30.  
 『대각사상』 32집 화보, 「성립당 월산 대종사 中道觀」, 대각사상연구원, 2019.  
 한태식(보광), 「월산 큰스님의 선사상(1)」, 『大覺思想』 32집, 대각사상연구원, 2019.  
 「万日念佛結社」 21호, 정토사, 2020.6.6.

Abstract

Middle Way Thought of Seon by Wolsan Buddhist Monk(2)

Han, Tae-sik(Bo-kwang)  
(Director, Institute of Maha Bodhi Thought)

This research examines Middle Way Thought of Seon by Great Seon Master Wolsan (1913-1997) as follows :

First, the topic of Wolsan's Hwadu (話頭) was 'What is it?.' In the meantime, he taught Seon meditation in various ways. There is a difference according to their capabilities between the actual guide for the senior monks of Seon monastery and the more suitable for the layperson. He emphasizes the need to turn to the salvation of sentient beings. It was presented the method of expressing the meditator's deluded views (見處), the Gatha hymn practice, and the own mind (自心) as the keeping the original and true mind (守本真心).

Second, Wolsan explained what the meditators in Seon monastery should practice from a middle way point of view. He suggested was the moderate method, which is to concentrate on the Hwadu. But it was to abandon both sides, and to take a middle way stance in accordance with one's own tenacity. Wolsan's middle way thought of Seon (中道禪) means that we chooses the optimal method of training according to his or her strength. He said, "The middle way is to not throw away a single, and the ultimate principle to not give up even one mind is the way."

Third,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at Seokguram Grotto(石窟庵), which marked the end of the Silk Roa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Bodhidharma came to China via the Maritime Silk Road, and the Chan (Seon) practice was transmitted to the Shaolin Cave. Afterwards, Wolsan devoted himself to Seokguram, a representative cave in Korea, and opened Bulguk Seonwon to spread his way. In particular, it can be inferred that he practiced in the crypt of Jeokcheonsa Temple in Cheongdo, performed valiantly at Seokguram as an



extension of that line, that his ceremonies are similar to practice of the Bodhidharma's Shaolin Cave.

Key words

Seon Master Wolsan, Middle Way of Seon, Middle Way, Jodang Collection (祖堂集), Maritime Silk Road